2026 세계 시청각유산의 날 기념 상영 및 대담 결과 정리

〈졸업앨범: 선생님을 기다렸다〉 상영 이후 전문가 대담

'되어가는' 기록영상의 주체들

2026년 11월 6일 |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 새공공영상문화유산정책포럼

1. 대담 개요

이번 대담은 1980년 5월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의 경험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 이후, 기록영상의 발견과 활용,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 개인의 기억과 감정, 시청각유산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논의한 자리였다. 기록영상이 과거를 증명하는 자료를 넘어 새로운 증언을 이끌어내고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문제로 다시 불러오는 매개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번 대담은 기록영상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그 가치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묻는 자리였다. 영상은 과거 사건의 증거이면서 기억을 환기하는 매개이고, 촬영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의 보존·복제·유통·발견·해석을 거쳐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획득한다. 새공공영상문화유산정책포럼이 지향하는 시민 참여와 시청각유산의 공공적 활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주요 대담 내용

① 5·18 서사의 지역적·주제적 확장

송은지 연구자는 이 영화가 광주 중심의 5·18 서사를 전주 지역과 고등학생들의 경험으로 확장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록영상과 사진, 흑백 애니메이션, 현재의 인터뷰가 결합해 40여 년 전의 사건을 오늘의 감정과 기억으로 연결한다고 평가했다.

② 30초 영상에서 2분 30초 자료로: 기록영상의 재발견

김종관 감독은 2016년 당시 졸업생들 사이에 공유되던 약 30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주KBS의 5·18 관련 프로그램에서 기존 영상에 없던 장면을 발견했고, KBS 내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분 30초 분량의 더 긴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16mm 필름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확인된 자료는 SD 화질의 변환본이며, 원 필름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촬영 주체가 계엄군 측이었을 가능성은 감독의 추정으로 제시되었다.

③ 새로운 증언을 이끌어내는 기록영상

김종관 감독은 졸업생 인터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영상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 장면과 인물은 잊힌 기억을 환기하고, 서로 다르게 기억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단서가 되었다. 다만 영상 역시 촬영자의 시선과 촬영 범위에 의해 제한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작자의 해석과 기록 자체의 힘

2021년 방송된 KBS<오월의기록>제작 경험을 소개한 김형석PD는 주제에 맞춰 영상을 선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아카이브 영상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현장 오디오를 최대한 살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송은지 연구자는 동일한 영상도 국가기관의 편집과 민간의 광주비디오 유통 등 서로 다른 활용 주체에 의해 상이한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⑤ '되어가는 기록영상'과 다양한 주체

좌장은 '되어감(becoming)'을 통해 기록의 가치가 촬영 순간 완성되지 않고 보존, 복제, 유통, 재발견, 해석과 활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송은지 연구자는 광주비디오의 매체적 변화와 재평가를, 김형석PD는 구술자료를 통해 과거 영상 속 인물의 정체가 밝혀진 사례를 소개했다. 김종관 감독은 학교 박물관이 영상을 소장하게 된 과정과 영상이 공동체의 기억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 경험을 공유했다.

⑥ 기억의 현재화와 후속 행동

대담 말미 김혜준 영상유산정책포럼 이사장은 1980년 광주를 직접 경험한 기억을 이야기하며, 영화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의 행적을 더 조사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기록영상이 관람과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조사, 구술채록, 공동체의 기억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발언이었다.

3. 주요 시사점

역사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기록의 가치는 촬영 당시 목적만이 아니라 이후의 발견·해석·공유를 통해 재평가된다.

기록영상은 구술과 기억을 활성화한다

영상을 매개로 당사자의 기억이 환기되고 새로운 증언과 검증의 단서가 생성된다.

생산·복제·유통·활용 이력의 기록화가 필요하다

영상 내용뿐 아니라 촬영 주체, 매체 변환, 소장·유통 경로, 재사용 맥락을 함께 기술해야 한다.

시청각유산 형성의 주체는 다층적이다

촬영자, 소장자, 복제·배포자, 연구자, 아키비스트, 당사자, 관객 모두 의미 형성에 참여한다.

공공적 접근과 맥락정보가 중요하다

원자료 발굴, 기관 간 협력, 인물 식별, 지역사회 참여형 해석이 기록의 사회적 활용을 확장한다.

4. 후속 논의(포럼 활동 중심)

- 기록영상 재발견을 위한 방송사·공공기관·지역 기록관·개인 소장자 간 소재 조사와 협력을 확대한다.
- 시청각유산의 가치평가에서 희소성·역사적 중요성뿐 아니라 공동체 기억과 사회적 실천을 촉발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한다.